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A Safe and Pleasant School Preparing for Your Future



이 호 진 / 장유중학교 교감

Lee, Ho-Jin / Vice Principal, Jangyu Middle School
mtsun54@yahoo.co.kr

2010년 12월 초순에 발표한 2009년 시행한 OECD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제학력 시험(PISA)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OECD회원국(34개국) 중에서 독해력 1위, 수학 1위, 과학 3위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영역별 집중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도, 자기학습 관리 능력 등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미래교육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경제가 어렵고 부족한 지식을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쌓기 위하여 교사 중심의 일제식 수업이 무엇보다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교사 중심의 일제식 수업이 우리 학생들의 개성, 창의, 독창성을 기르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어 학습 흥미도와 자기주도적 학습관리 능력을 신장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정보 지식의 재조직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육, 첨단 정보통신과 다양한 학습콘텐츠 구축을 통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의 환경과 질을 개선한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까지 교사중심의 일제식 수업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교육환경을 학생이 교과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습 자료가 구비되고 교과 관련 정보를 구축한 교과 교실에서 학습하는 이론과 실기가 통합된 흥미롭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1. 새롭게 태어나다

본교는 65여 년의 전통을 가진 지역의 유일한 중등교육 기관으로 지역 공동체 교육의 중심이 되어왔으나 장유가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 형성으로 인해 대규모 공립 중학교가 연이어 개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지와 거리가 먼 본교는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전통과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교과교실제를 착안하고, 2008년 3월 마침내 교과교실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일자형으로 배열된 교실 배치와 본관과 별관의 긴 동선 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부모의 지지와 학생들의 호응은 물론 지역민과 동창회의 지원으로 교과교실제를 순조롭게 시행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시설 개선이 절실했던 2009년 8월에 교과부로부터 '선진형 교과교실제' 정책시범학교로 선정되어 고질적인 이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관과 본관 건물 사이에 이동통로와 학생들의 각종 복지, 편의 시설 증축 및 기자재를 확보,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통해 교사의 교과 전문성과 수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2010년 3월부터 선진형 교과교실제 정책시범학교와 2009 개정 교육과정 선도학교, 2012년 3월부터 창의경영학교 '선진형 수학교실' 등을 동시에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업 환경과 분위기를 크게 변화, 개선하였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좋은 평가와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다.

2. 시작을 위한 준비

어떤 일이라도 처음 시도하고자 할 때는 막막한 느낌이 들 것이다. 특히 다른 곳에서 시도한 일도 없는 생소한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교과교실제 역시 처음 운영하고 자 하는 학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막연하게 들어오던 기본 개념과 다른 학교들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특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학교실태, 시설 환경, 지역여건 등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른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학교경영, 시설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앞으로 학교교육에서 추구하여야 할 지식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학교 시설, 환경조성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전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으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즐겁고 안락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음 몇 가지 관점에 따라 증축하고자 하였다.

첫째, 전국에서 이미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여 실패한 학교들의 여러 가지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시설 환경부분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계획에 반영한 것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

둘째, 학생 최우선 법칙, 학교시설을 사용할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배우고, 가르치고, 생활하기 편리한 학교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완공 후의 불만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사진 1. 벚꽃핀 장유중학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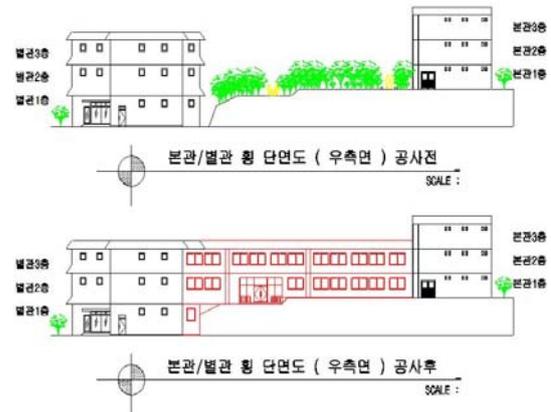


그림 1. 본관/별관 횡 단면도 공사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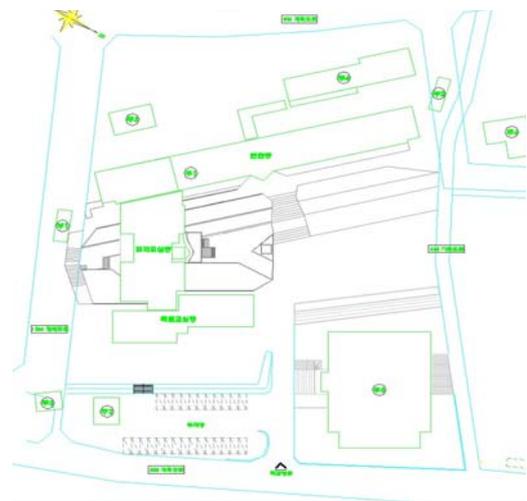


그림 2. 장유중학교 건물 배치도

셋째, 기존의 건물의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시설을 보완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질 높은 학교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건물을 증축하였다.

3. 학생과 교사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시설 확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학생들의 생활이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증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과교실제의 성패는 수업의 질에 있으므로 교사들의 수업 개선과 수업 개발 및 학생활동이 용이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지원될 수 있는 학교 시설 환경에 그 목적을 두었다.

무엇보다도 교과교실제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 이동 수업에 따른 긴 동선이었는데 본관과 별관 사이에 건물을 증축하여 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동선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다양한 시설을 확보하여 질 높은 교과교실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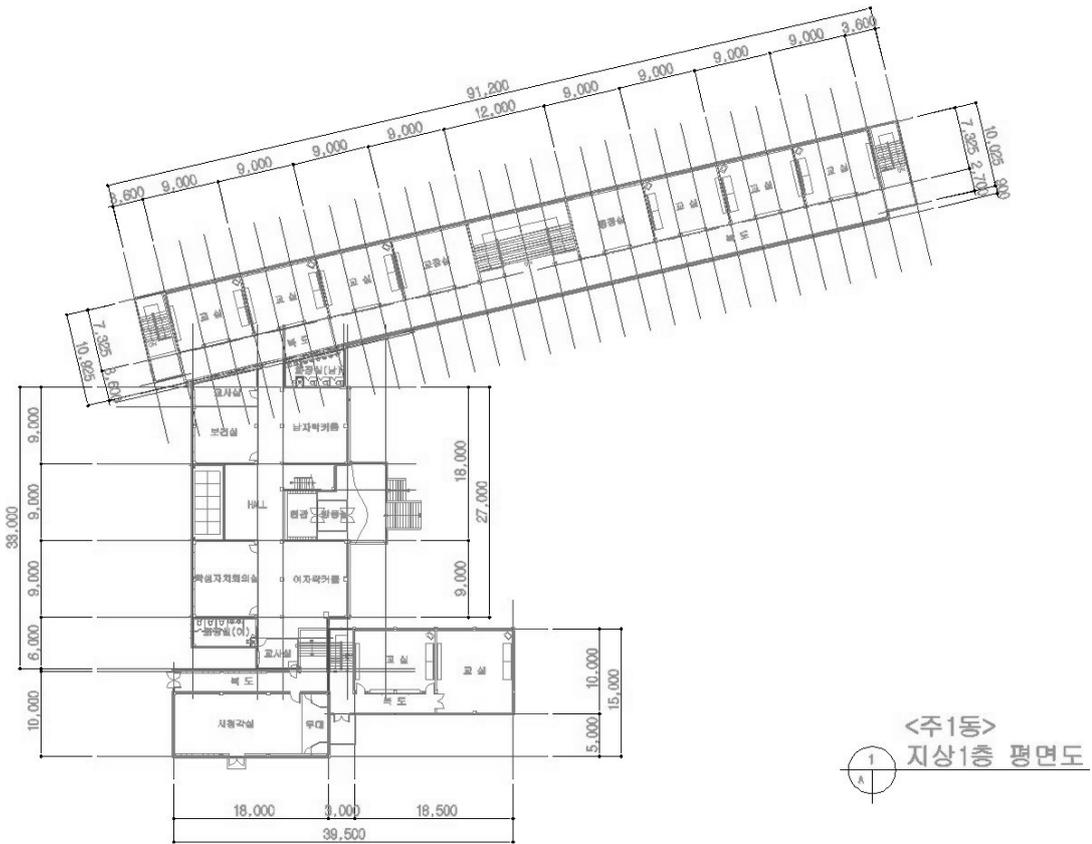


그림 3. 지상1층 평면도

첫째, 건물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증축관에는 이동 통로와 함께 교과교실제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학생들의 휴게 공간, 자율활동 공간 확보, 보건실, 상담실, 학생자치회의실, 급수대 등의 학생 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였다.

둘째, 교과교실의 활용성과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과교실과 교과지원실을 교과군에 따라 집중 배치하였다.

셋째, 교과지원실(교과연구실은 교사들만의 전용공간 같은 느낌이 있어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교과에 관한 각종 어려움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은 공용 기자재와 자료 등을 비치한 학습자료실의 기능과 교사들의 교재 연구, 교과 협의, 학습자료 개발 구상, 휴식 등을 위한 연구 공간, 생활지도와 학생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벽면을 투명 유리로 설치하여 학생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기자재 활용이나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고려하여 꿈을 키우는 최적의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교과 특성 살린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이 용이하도록 리모델링하였다. 교과교실은 수업 관련 자료나 수업 결과물 등을 축적 비치하여 교수·학습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습자료 제작실을 확보하여 학습자료 제작용 각종 장비(플로터, 고성능 컴퓨터, 제본기, 복사기, 코팅기, 파쇄기 등) 확보와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교수·학습지도 방법에 따른 다양한 학습 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수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4. 더불어 생활하는 안전한 학교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학생 간에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을 찾아 사전에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사물함의 분산배치로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이동 통로를 중심으로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사물함 설치에 학생들이 사용 시 등을 지는 것을 배제하여 학생들 간에 충돌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홈페이지는 학생들의 친교 및 휴식의 공간이자 정보교환 및 소규모 협의공간이 되도록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각 층에 남, 여학생용 홈페이지를 각각 조성하고, 학



사진 2. 본관과 별관을 연결한 증축 건물



사진 5. 사회교과지원실의 투명벽



사진 3. 증축건물 실내



사진 6. 여학생 휴베이스



사진 4. 휴게공간의 급수대 및 전자게시판



사진 7. 복도의 전시대 및 사물함

생자치회의 활성화로 불편사항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선하였다.

셋째, 실내의 모서리 부분은 학생들의 돌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무 보호대를 설치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곳에 보건실, 상담실, 교과지원실의 투명벽과 출입문 등을 확보 학생들과 교사간의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사제 간의 간격을 좁혀 학생들의 각종 고민을 해결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는 일반게시판과 정보전달 시스템을 사용하던 TV와 컴퓨터를 재활용하고 과

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 저비용으로 구축하여 당일의 행사, 수업시간 변경, 캠페인, 홍보내용 등을 수시 게시하고 교무실에서 통제토록 하였다.

여섯째, 교과군별 교과지원실은 투명한 유리벽으로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전문상담실, 보건실 등은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비행을 사전에 예방 지도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일곱째, 교사는 교과교실에서 상주하며 수업준비를 갖추고 학생을 맞이하므로 사제 간의 정을 두텁게 하고 자연스런 상담을 통해 원활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교실내의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5.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선진형 교과교실제’와 ‘2009 개정교육과정’ 선도학교, 2012년 3월 창의경영학교 ‘선진형 수학교실’ 운영을 통하여 많은 시설을 수정 보완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물론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매학기 실시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학생 52.1%, 학부모 51.4%, 교사 90.9%에서 2011년에는 학생 76.5%, 학부모 81.0%, 교사 98.0%로 해를 거듭할수록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매년 미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본교의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자문을 요청하는 학교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여도 학교 현장에 적용시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오늘의 우리 교육은 학습자의 많은 지식의 축적도 중요하겠으나 각종 지식, 정보를 재조직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으므로 학교시설

은 첫째, 교과별 다양한 미디어(도서, 컴퓨터, 각종 기기 등)를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 수시로 이용 가능한 공간, 둘째, 교사, 학생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셋째,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 넷째, 학생들이 안전하고 인락한 복지시설 등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학생중심 교육활동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진 8. 북 카페 및 영화 감상실



사진 9. 영어교과교실